

106. 제주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

제주고고학연구소

목 차

I. 머리말	106-7
II. 조사 지역 및 주변 환경	106-9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106-9
2. 고고학적 환경	106-12
3. 삼양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	106-18
III. 조사 방법 및 층위	106-23
1. 조사 방법	106-23
2. 층위	106-24
IV. 조사 내용	106-25
V. 맺음말	106-28

삽 도 목 차

삽도 1. 『耽羅巡歷圖』(한라장축)에 나타난 옛 삼양동의 ‘소흘포(所訖浦)’	106-20
삽도 2. 조사대상지 위성사진(출처 naver)	106-23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지질도	106-10
도면 2. 조사대상지 토양모재[흙토람 (http://soil.rda.go.kr) 참고]	106-10
도면 3. 조사대상지 토양 퇴적양식[흙토람 (http://soil.rda.go.kr) 참고]	106-11
도면 4. 조사대상지 토양 분포지형[흙토람 (http://soil.rda.go.kr) 참고]	106-11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조)	106-13
도면 6. 조사대상지 위치 및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참조)	106-14
도면 7. 조사대상지 층위도	106-24
도면 8.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106-25
도면 9. 1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106-26
도면 10. 2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106-26
도면 11. 3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106-27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북서에서, ②북에서)	106-31
도판 2. 1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1차 조사 후, ③토층, ④조사 완료), 2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⑥1차 조사 후, ⑦토층, ⑧2차 조사 후)	106-32
도판 3. 2호 수혈유구(①~③내부 주혈 토층, ④조사 완료), 3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⑥1차 조사 후, ⑦토층, ⑧출토유물)	106-33
도판 4. 3호 수혈유구(①2차 조사 후, ②·③내부 주혈 토층, ④조사 완료), 조사대상지 남서쪽 유물 출토 모습(⑤)	106-34
도판 5. 조사대상지 북동쪽 유물 출토 모습(①), 자문회의 모습(②)	106-35

I. 머리말

본 보고서는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 유적의 보고서이다. 조사 대상지가 위치한 삼양동은 주변보다 살짝 내만한 지형의 해안에 접한 마을로 제주도의 북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삼양동은 원당봉(해발 171m)을 제외하면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감물개’라는 해안용천수가 용출되고 있다. ‘감물개’는 현재 삼양 1·2 수원지로 개발된 상태이다¹⁾. 해안에는 ‘감물개’ 이외에도 ‘큰물’과 ‘셋도리물’ 등 다수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어 풍부한 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지를 포함한 삼양동일대는 해안자원과 해안으로부터 솟아나는 용천수의 이용이 매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삼양동유적(사적 제416호)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양유원지 조성부지내 유적이 인접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물산포지와 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 일대에 대규모 취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번 발굴조사된 유적은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이며 면적은 162.1㎡이다. 조사대상지 인근에 삼양유원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입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혈 유구와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 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어 국가지원 소규모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한국문화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17년 7월 13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실조사는 7일 동안 이루어졌다.

발굴조사결과 신석기시대의 수혈유구 3기와 주혈이 조사되었으며 문화층에서 토기잔편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소장)

책임조사원 : 김용덕(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조 사 원 : 윤중현(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오원홍(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송주란(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1) 강순석, 2004,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현장조사는 강창화의 책임하에 조사단이 실시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선생님과 김정선(제주도 문화재위원)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여 유적 조사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다. 보고서 작성은 현장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이 중심이 되어 초고를 완성했으며 김용덕이 이에 수정·가필하였다. 유적 도면, 유구의 도면·도판 편집은 오원홍이 담당하였다. 보고서의 원고 작성은 I 장 머리말, II 장 조사 지역 및 주변 환경에서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고고학적 환경은 윤중현이 작성하였다. 삼양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은 고창석(前제주고고학연구소장)이 작성하였다. III 장 조사 방법 및 층위, IV 장 조사 내용은 윤중현·오원홍이 기술하였고, V 장 맺음말은 윤중현이 작성하였다. 보고서 최종 교열 및 감수는 강창화가 하였다.

Ⅱ. 조사 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33°31'24.85", 동경 126°34'55.42"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삼양동유적(사적 제416호)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양유원지 조성부지내 유적이 인접하여 있다.

유적은 현재 해안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는 8m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의 지형은 남에서 북으로 급경사져 내려오는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지는 주변에 비해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서쪽으로는 남쪽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삼수천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해안가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천수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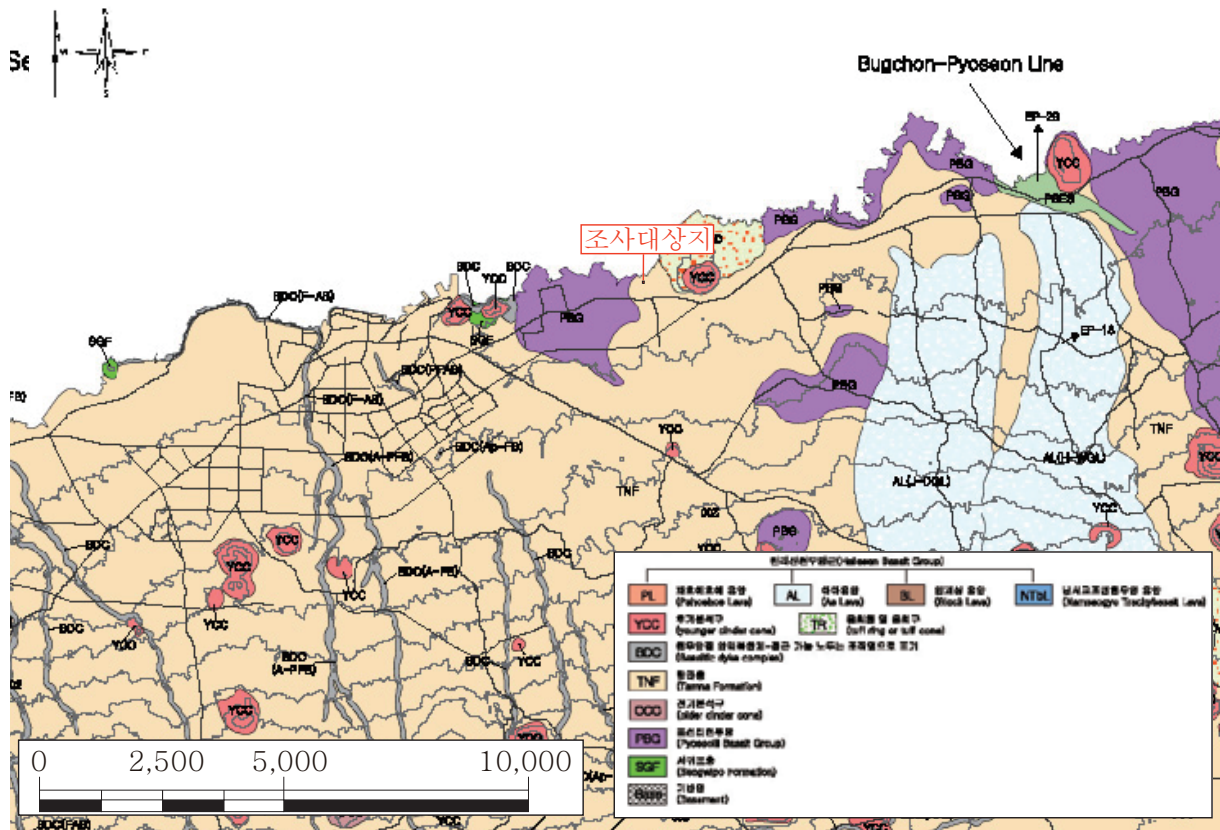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삼양동은 주변보다 살짝 내만한 지형의 해안에 접한 마을로 제주도의 북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에서 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당봉(해발 171m)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450m 이격되어 있으며 삼양동유적(사적 제416호)에서 남서쪽으로 200m 이격된 곳에 위치한다. 주변의 하천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약 490m 떨어진 곳에는 봉개동에서 발원한 '음나물내'가 삼양해수욕장의 동편 끝으로 흐르고 있으며 서쪽으로 790m 떨어진 곳에 삼수천이 삼양2동 해안으로 흐르고 있다.

삼양동은 신촌과 더불어 제주에서 용천수로 유명한 곳이다. 삼양동 해안에는 현무암이 모재인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과 사구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 삼양해수욕장의 서편에 '감물개'라는 해안용천수가 용출되고 있다. '감물개'는 현재 삼양 1·2 수원지로 개발된 상태이다²⁾. 해안에는 '감물개' 이외에도 '큰물'과 '셋도리물' 등 다수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어 풍부한 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토양은 대흙통³⁾이다. 대흙통은 미국 Soil Taxonomy 분류에 의하면 coarse loamy, mixed, thermic family of Fluventic Hapludolls에 속하며, FAO/WRB 분류에 의하면 Mollic Fluvisols(Eutric Novic)에 속한다. 표토1(Ap)은 암갈색의 양질사토, 표토2(AC)는 암갈색의 사양토이다. 2심토(2Bb)는 농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이며 구조는 약하고 큰 괴상이다. 대흙통은 조개껍데기가 있는 해변에 기인한다. 완만한 경사 내지 경사지의 해안단구와 해변지역에 발생한다. 경사는 2~15%이며 주된 경사는 2~7%이다. 토양배수는 양호이며 투수성은 약간 빠르면서 유거는 보통이다. 분포면적은 제주도 해변지역에 분포하며 매우 좁은 면적으로 분포한다. 대흙통의 유사토양은 온평, 명지, 마지통이다.

2) 강순석, 2004,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3) 흙토람(<http://soil.rda.go.kr>)



도면 1. 조사대상지 지질도



도면 2. 조사대상지 토양모재[흙토람 (<http://soil.rda.go.kr>) 참고]



도면 3. 조사대상지 토양 퇴적양식[흙토람 (<http://soil.rda.go.kr>) 참고]



도면 4. 조사대상지 토양 분포지형[흙토람 (<http://soil.rda.go.kr>) 참고]

2. 고고학적 환경⁴⁾

유적이 위치한 제주시 삼양동은 삼양동유물산포지와 삼양동고인돌, 도련동고인돌이 일찍부터 알려지면서 선사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졌다. 1996년 삼양동택지개발사업 중 삼양동 유적이 조사되면서 이 일대에 대규모의 취락유적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삼양동유적은 국가사적 제416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신석기시대 초창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면서 삼양동일대는 대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삼양동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화택지개발지구 신석기시대 유적은 제주시 삼양동 삼화지구 택지개발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의 서편으로 삼수천이 흐르고 있다. 고산리식토기와 함께 압날점열문토기, 무문양토기가 공반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석촉, 첨두기, 굽개, 마제석부, 갈돌, 갈판 등이 확인되었다⁵⁾.

삼양유원지 조성부지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유물로는 고산리식토기와 용기문토기, 조흔문토기, 조우문토기와 함께 세석핵, 격지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와 마연토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수혈유구와 적석유구,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⁶⁾.

삼화지구유적은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호남문화재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등에서 구역별로 조사하였다.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나구역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1구역에서는 구석기시대 몸돌을 비롯하여 송국리형주거지 1동, 지상건물지 1동, 수혈유구 28기, 옹관묘 9기, 토광묘 5기, 소성유구 9기, 구 7기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 15기, 소성유구 2기, 조선시대 수혈 2기, 구 2기가 확인되었다. 3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0동, 수혈 28기, 소성유구 2기, 소토유구 9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지상건물지 5동이 확인되었다⁷⁾.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조사한 가-I 구역에서는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 33동, 방형주거지 17동, 원형주거지 1동으로 총 51동, 수혈유구 156기, 소성유구 11기, 소토유구 8기, 옹관묘 5기, 토광묘 4기, 매납유구 4기, 지상건물지 6동, 구상유구 7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직립구연토기, 호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마연토기, 삼양동식토기 등의 토기류와 타제석기, 석촉, 석부, 석검, 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 등의 석기류, 방추차, 원판형토제품, 유리구슬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초기철기대로 상한대는 B.C.800년대이며 하한대는 B.C.300~100년대로 상정하고 있다⁸⁾.

4) 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西歸浦市』.

5) 동양문물연구원, 2011, 『제주 삼화지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4집.

6)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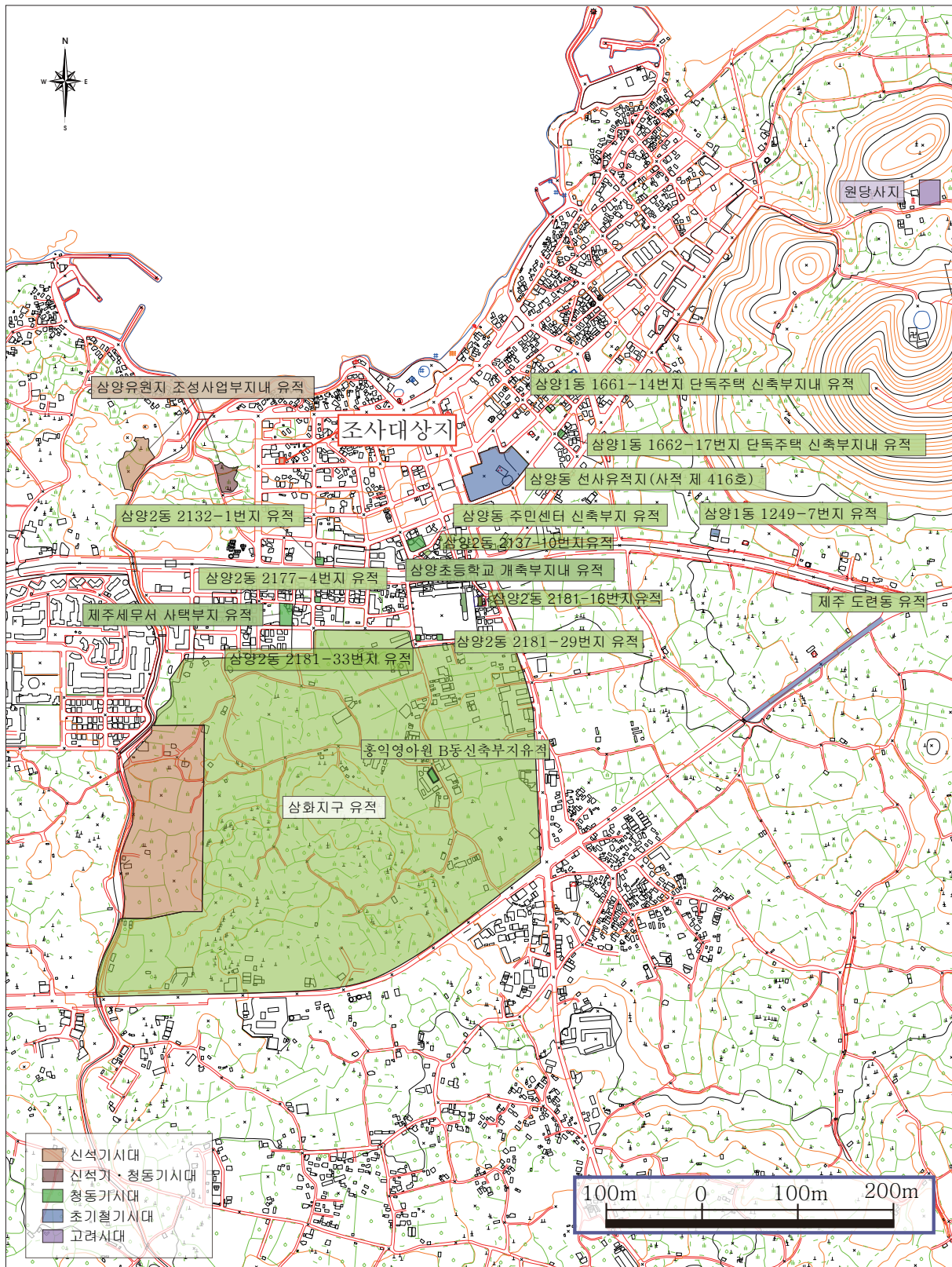
7) (財)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 三和 나 地域 遺蹟-I・II 區域』.

(財)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 三和 나 地域 遺蹟-III 區域』.

8)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7책.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고)



도면 6. 조사대상지 위치 및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참고)

삼화지구 가-Ⅱ 구역을 조사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가-Ⅱ 구역으로 6지점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101기, 적석유구 5기, 구상유구 25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대부분 토기류로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공렬토기, 무문토기, 마연토기, 경질무문토기 등이 있으며 석기류로는 합인석부, 갈돌이 확인되었다⁹⁾.

제주세무서 직원사택건축부지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장방형주거지 2동, 수혈유구 2기, 적석유구 1기 및 삼국시대~조선시대의 적석매납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호형토기, 구순각목문공렬토기, 흑색마연토기 등이 있다. 유적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청동기시대 장방형, 방형주거지 유적과 비교될 수 있으며, 시기는 기원전 6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¹⁰⁾.

삼양2동 2132-1번지내 유적에서는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1기, 주혈군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 추정되었다¹¹⁾.

삼화지구 동측도로 확장공사구간내 유적에서는 탐라성립기의 합구식옹관묘 1기와 토광묘로 추정되는 토광 1기, 조선시대 유구 1기와 지상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전형적인 삼양동식토기 기형의 대형호를 합구한 형태로 용담동 옹관묘에 비해 선행되는 옹관묘로 추정하였다¹²⁾.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내 유적에서는 장방형주거지 4동,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 3동, 굴립주건물지 1동, 원형구상유구 1동, 석관묘 1기, 수혈유구 24기, 소토유구 1기, 구상유구 8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원형점토대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경질무문토기편, 공이[敲石]과 솥돌[砥石], 석착, 석부편, 토제방추차가 확인되었다. 유적은 삼양동유적과 삼화지구유적의 범위가 겹치는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의 형태로 볼 때 장방형계의 무문토기시대와 원형계의 송국리문화의 유입단계에 형성된 삼양동 취락유적의 일부분으로 추정하였다¹³⁾.

삼양동유적은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대단위 취락유적으로 1996년에서 1998년까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 236기(송국리형주거지 173기, 장방형계 17기, 부정형 18기, 지상식 불다짐처리 부정형주거지 20기, 굴립주 건물지 8동)와 소토유구 11기, 석축유구 2기, 구상유구 3기,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236기 가운데 155기는 내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1기는 유구 굴광선만 확인한 상태로 발굴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후에 삼양동유적 야외전시관부지와 주차장 및 관리실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로 미조사되었던 유구의 조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송국리형주거지의 규모는 대략 직경 4~5m이며 직경 6.6m의 대형주거지도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원형·타원형·삼각형 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인 삼양동식토기, 파수부토기 등의 토기류와 마제석검, 마제석촉, 동검편, 환옥, 동촉, 철기류, 유리구슬, 석부, 석착, 지석,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탄화된 보리와 콩 등의 곡물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시기는 다르지만 신석기시대 유물도 확인되었는데 용기선문토기, 점열문토기, 석촉

9)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화지구 가-Ⅱ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6집.

10) 國立濟州博物館, 2007, 『濟州稅務署 職員舍宅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1) 國立濟州博物館,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2) (財)湖南文化財研究院, 2008, 『濟州 道蓮洞甕棺墓』.

1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 유적(2136-9번지) 발굴조사 보고서』, 제12집.

등이 출토되었다¹⁴⁾.

삼양동 1249-7번지내 유적에서는 주거지 14동(원형 7동, 장방형 6동, 방형 1동), 굴립주건물지 3동, 수혈유구 8기, 소토유구 1기, 석렬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 경질무문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회색연질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질무문토기 중 외반구연토기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토제방추차와 원판형토제품의 다수 출토되었으며 석기류는 연석, 지석 등 소량만 확인되어 대조를 이룬다. 삼양동 1249-7번지 유적의 조사는 기존 삼양동선사유적지가 송국리형 주거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락유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유적에서는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 외에 방형계 주거지가 공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취락의 범위가 삼양동선사유적지에서 원당봉 남쪽 하단부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삼양동 Ⅵ지구 1665-1번지내 유적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 6동, 굴립주건물지 1동,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직립구연토기, 경질무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 고석, 연석, 요석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었다¹⁶⁾.

제주 도련동 유적은 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부지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송국리형주거지 4동,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유구 22기, 구상유구 5기, 집석유구 1기, 소토유구 2기, 옹관묘 1기,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원형점토대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환상파수부편 등의 토기류와 석촉과 지석, 고석, 연석, 요석 등이 확인되었다¹⁷⁾.

삼양2동 2133-4번지 유적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¹⁸⁾.

삼양2동 2175-2번지 유적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3기와 구상유구 1기, 다수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가 확인되었다¹⁹⁾.

삼양2동 2181-29번지 유적은 근린생활 신축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방형주거지 1동,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3기, 굴립주 건물지 1동, 역사시대 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공열문토기, 돌류문토기, 직립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지석, 흙돌, 고석, 갈돌, 갈판, 미완성석기 등의 석기류, 방추차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14)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濟州三陽洞遺蹟 Ⅱ・Ⅲ地區』.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濟州三陽洞遺蹟 Ⅰ・Ⅴ地區』.

1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양1동 1249-7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4집.

1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 유적 Ⅵ지구(1665-1번지) 발굴조사 보고서』, 제10집.

17)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도련동 유적(614-1번지) 발굴조사 보고서』, 제16집.

18) 한국문화재보호재단·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제주 삼양2동 2133-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p.309~354, 제268책.

19) 한국문화재보호재단·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제주 삼양2동 2133-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p.355~388, 제268책.

AMS분석결과와 출토 토기를 종합해 볼 때 기원전 8세기로 비정하고 있다²⁰⁾.

삼양1동 1654-10번지 유적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 결과, 탐라성립기의 수혈유구 5기와 고려시대의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과 청자완 1점, 청자편 등이 확인되었다²¹⁾.

삼양2동 2102-23번지 유적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6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청자와 도기편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편년은 AMS 분석결과와 출토유물을 통해 A.D.13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²²⁾.

삼양2동 2137-10번지 유적은 단독주택신축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방형주거지 1동,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2기와 다수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마연토기, 무문토기, 점토대편 등의 토기류와 마제석촉, 석착, 홈돌, 갈돌, 지석 등의 석기류, 방추차, 곡옥 2점이 확인되었다²³⁾.

삼양동 고인돌은 삼양초등학교에서 남서편으로 25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는 삼화택지개발 지구안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19cm, 단축 157cm, 두께 35~50cm이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며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상석의 동쪽 중앙에 길이 63cm, 폭 52cm, 두께 28cm의 활석상 지석이 기울어진 상태로 고여 있다. 상석의 북쪽과 남쪽은 길이 40cm 정도의 괴석 1매가 고여 있으며 서쪽은 지석 없이 바로 지면에 닿아 있다.

도련동 1호 고인돌은 삼양동고인돌에서 동쪽으로 50여m 이격되어 있으며 도련동 2호 고인돌과 삼양동 고인돌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22cm, 단축 205cm, 두께 15~52cm이며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상석의 북동, 남서쪽에는 치석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상석의 북편에는 정질하다 만 흔적이 남아 있다. 상석의 상면은 굴곡이 심하고 성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변지역을 발굴조사한 결과 고인돌은 생토층이나 문화층 위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표토층에 떠있는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도련동 2호 고인돌은 도련동 1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40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45cm, 단축 175cm, 두께 35~40cm이다.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으로 도련동 2호 고인돌의 방향과 동일하다. 이 고인돌은 축조시 상석 자체의 두께가 고른 것을 일부러 택한 것으로 보인다. 상석 동서편에 수직으로 다듬은 치석흔이 관찰되며 상석의 북동쪽은 개방되어 있다. 아치형으로 개방된 부분의 높이는 22cm이다. 지석은 상석의 북서, 남동, 북동에 각각 3매가 고여있다. 지석의 크기는 직경 15cm 미만이다. 그러나 최근 경작에 의해 원상에서 뒤집혀진 상태이다.

20) 한국문화재보호재단·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삼양2동 2181-29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p.389~538, 제268책.

21) 한국문화재재단·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 삼양1동 1654-10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I-제주 1-』, p.73~114, 제286책.

22) 한국문화재재단·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제주 삼양2동 2102-23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I-제주 1-』, p.115~190, 제286책.

23) 한국문화재재단·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제주 삼양2동 2137-10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I-제주 1-』, p.191~254, 제286책.

도련동 3호 고인들은 1985년 제주도 전역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나 1992년 조사에서는 고인돌 상석이 마을 주민에 의해 도련동 마을입구 야외공원으로 이전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삼양동선사유적지 야외공원에 이전복원되었다. 원상의 고인들은 지대가 다소 높은 경작지의 돌무더기에 있었다. 상석은 북서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었고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23cm, 단축 296cm, 두께 40~80cm이며 상석의 북동쪽에 1매의 판석상 지석이 확인되었다.

3. 삼양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²⁴⁾

삼양동(三陽洞)은 현재 제주시에 속한 19개의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동쪽으로는 조천읍 신촌리, 서쪽으로는 화북동, 남쪽으로는 봉개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접한 지역이다.

삼양동과 관련된 지명이 문헌상에 나타나기는 『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봉수(烽燧) 항목의, ‘원당악(元堂岳) 봉수’가 그 시초라 할 것이다. 서쪽으로는 별도(別刀) 봉수와 교신하고 동쪽으로는 입산악(笠山岳) 봉수와 교신한다고 하였다. 봉수는 횃불(烽)과 연기(燧)로써 급보(急報)를 전하던 군사 통신조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석(註釋)에 의하면, “봉(烽)은 횃불을 들어서(舉火) 통보하는 것을 뜻하고 수(燧)는 쏘나무(紫木)에 불을 질러서 그 연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낮에는 연기(煙氣), 밤에는 횃불(烽火)을 들어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조선 전기 제주도 지역의 봉수에 대해서 『세종실록(世宗實錄)』 21년(1439) 윤2월 4일자에 의하면, 제주 도안무사(都安撫使) 한승순(韓承舜)이 “봉화(烽火)를 올리고 망(望)을 보는 곳은 제주의 동쪽에 있는 김녕(金寧)으로부터 제주의 서쪽에 있는 판포(板浦)까지의 사이에 10곳, 대정현 서쪽에 있는 차귀(遮歸)에서 동쪽에 있는 거옥(居屋)까지의 사이에 5곳,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只末山)까지의 사이에 7곳입니다. 봉화를 올리는 곳마다 5명씩 사람을 나누어 배치하였고 또 봉수대(烽燧臺)를 쌓되, 높이와 너비는 각각 10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망보는 사람은 무기와 깃발·나발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적정(賊情)이 나타나면, 봉화를 올리고 나발을 불면서 서로 연락하여 알리게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봉수와 연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언급하였는데, 그 수는 제주목 지경이 10곳, 대정현 지경이 5곳, 정의현 지경이 7곳으로 합하여 모두 22곳이다. 일일이 위치와 지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치된 봉수대의 규모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자라 하였고, 봉화군은 봉화가 있는 곳마다 5명씩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수의 수에 있어서는 종종 때 이루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 3읍 봉수 항목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8개소):사라악(沙羅岳, 사라봉), 별도(別刀), 원당악(元堂岳), 입산악(笠山岳, 김녕리), 도도

24) 이 글은 고창석 교수(前 제주고고학연구소장)이 작성한 글이다.

리악(道道里岳, 도두봉), 수산악(水山岳, 애월 수산봉), 고내악(高內岳, 고내봉), 판을포악(板乙浦岳, 판포악),

정의현(10개소):남산(南山, 성읍 남산봉), 오음사지악(吾音沙只岳, 삼달리 독자봉), 여을온(餘乙溫, 성산 온평리), 소수산악(小水山岳, 성산 수산리), 지말산악(只末山岳, 종달리 지미봉), 달산(達山, 달산봉), 토산(兎山, 토산악), 전월론(錢月論, 위미 자배봉), 호아촌(弧兒村), 삼매양(三買陽, 삼매봉),

대정현(5개소):송악(松岳山), 모슬포악(毛瑟浦岳, 모슬봉), 차귀악(遮歸岳, 당산봉), 굴산(堀山, 군산), 거옥악(居屋岳, 구산봉).

이상은 봉수망 설치 초기의 배치 상황이다. 이에 의하면 『세종실록』의 내용과는 우선 제주목 지경에서 2곳, 정의현 지경에서 3곳 등 모두 5곳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곳의 차이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제주목의 사라악 봉수를 중심으로 우회시켜 서로 교신하는 곳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라악↔별도↔원당악↔입산악↔지말산악↔소수산악↔여을온↔오음사지악↔남산↔토산↔달산↔전월론↔호아촌↔삼매양↔거옥악↔굴산↔송악↔모슬포악↔차귀악↔판을포악↔고내악↔수산악↔도도리악↔(사라악)

그런데 이들 지역은 모두가 높은 산정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후일의 봉수·연대의 구분상 우선 봉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정비 과정에서 해안을 따라 연대가 설치되면서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봉수와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가 구분되고, 그에 따른 관할처나 봉수관의 배치도 차이가 나게 된다. 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정비되어 나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선조 36년(1603) 제주에 어사(御史)로 왔던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植錄)』에는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곳으로 ‘소흘포(所訖浦)’를 거론하였다. 그 위치는 제주목에서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다. ‘소흘포’는 지금의 삼양1동에 편제된 해안지대의 포구로서 민간에서 주로 ‘서흘개’, 혹은 ‘설개’라 부르는 곳이다. 이 ‘소흘포’가 1770년대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에는 ‘서흘포(鋤訖浦)’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鋤訖浦’의 ‘鋤’자가 호미 ‘서’자이므로 ‘소흘포’, 혹은 ‘서흘포’는 주변 지형이 호미[鋤]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鋤)’라는 한자에 집착한 견강부회이다. 따라서 ‘서흘개’, 혹은 ‘설개’는 돌들이 엉기정기 쌓인 곳을 뜻하는 제주방언 ‘설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소흘포’나 ‘서흘포’는 이곳 주변에 마을이 이루어졌음을 뜻할 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이 바다를 통해 오가는 포구로서 자주 이용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구의 명칭에서 자연히 주민이 사는 곳을 뜻하는 마을로서 차차 소흘촌(所訖村), 혹은 서흘촌(鋤訖村)·서흘리(鋤訖里)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이리하여는 정조 10년(1786)경에 씌어진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 항목에는 ‘ㄹ흘리(ㄹ訖里)’라 하고, 그 마을의 형세를 기록하여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민호(民戶)가 91호, 인구는 남자가 207명, 여자가 307명으로 합계 514명이다.”라고 하였다. 또 뒷날 삼양동에 합쳐지는 ‘도련평리(道連坪里)’도 그 형세를 기

록하여 “동쪽으로 ㅁㅁ3리 거리에 있다. 민호가 36호, 인구는 남자가 80명, 여자가 136명으로 합계 216명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ㅁ訖里’의 탈락된 ‘ㅁ’ 부분의 글자는 ‘소(所)’이거나 ‘서(鋤)’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所訖里’ 혹은 ‘鋤訖里’가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제주읍지』보다 조금 뒤인 정조 13년(1789)에 씌어진 『호구총수(戶口總數)』 제주 중좌면(中左面) 항목에는 ‘서흘포리(鋤訖浦里)’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좌면은 행정면이 아니라 유면(儒面)이었다.

즉, 유면은 향약 시행의 단위였다. 또한 유면은 정비되기 이전의 조선 전기의 행정면의 구실도 하였다. 숙종 원년(1675) 12월 제주목에서 지금의 한림읍 금악리 수산강씨(水山姜氏) 집안에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에 ‘明月面 水流川里’라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원래 유면을 설치한 것은 문묘(文廟, 鄉校)와도 관계가 있다. 기강을 세우고 유학(儒學)을 권하여 마을에 가르침을 베풀고 마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따라서 유면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정비된 행정적 차원의 면·리 제도와는 현저히 다른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현(縣)까지였다. 그러므로 면(面)은 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지방 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삽도 1. 『耽羅巡歷圖』(한라장족)에 나타난 옛 삼양동의 '소흘포(所訖浦)'

그러므로 면은 수령의 관할이라기보다는 향소(鄉所) 또는 향약의 계통을 잇는 것이었다. 약정(約定) 등의 임원도 좌수(座首)·별감(別監)의 추천에 의하여 수령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약정 등의 임무는 제주목과 대정·정의 두 현의 행정 단위와 일반 백성 사이에 개재하여 정령(政令)을 주지시키고 특히 조세를 독촉하는 등 지방 관청의 심부름이 주된 임무였다. 향소 또는 향약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향촌의 덕망가가 추대되어 교화로써 자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뒤에는 차차 그 역할이 변질되어 나갔다.

조선 영조 41년(1765)경에 씌어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일본 天理大 소장) 제주목 면촌(面村) 항목에는 행정면과 유면이 혼성(混成)되어 있다. 즉, 제주목은 4개의 대면(大面, 行政面) 안에 12개의

소면(小面, 儒面)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총 81 리), 좌면(左面, 18리)에 소속된 유면은 신촌면(新村面, 4리) · 조천관면(朝天館面, 5리) · 김녕면(金寧面, 5리) · 별방면(別防面, 4리) 등 4면이고, 중면(中面, 28리)에 소속된 유면은 중좌면(中左面, 10리) · 주중면(州中面, 10리) · 중우면(中右面, 8리) 등 3면이며, 신우면(新右面, 21리)에 소속된 유면은 귀일면(貴日面, 4리) · 엄장면(7리) · 애월면(10리) 등 3면이다. 또 구우면(舊右面, 14리)에 소속된 유면은 명월면(明月面, 9리) · 판을포면(板乙浦面, 5리) 등 2면이다. 그리고 대면에는 풍헌(風憲)이 각 1인이고, 소면에는 약정(約正)이 각 1인이다. 81리에는 경민장(警民長) · 권농(勸農) · 기찰장(機察官) · 포도(捕盜) · 존위(尊位) · 동장(洞長) · 이임(里任) · 색장(色掌) · 지심(指審) · 유사(有司)가 각각 1인이 있어서 함께 서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다.

광무(光武) 8년(1904)에 씌어진 『삼군호가구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는 오늘날의 삼양동에 해당하는 마을로 삼양리(三陽里)와 도련리(道連里)가 편제되어 있다. 즉, 삼양리와 도련리는 제주목의 중면(中面)에 속한 25개 리에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의 이 두 마을의 형세를 살펴보면, 삼양리는 “연가(烟家) 290호에 인구는 남자가 474명, 여자가 490명으로 합계 964명이며, 초가는 711칸”이라 하였으며, 도련리는 “연가 80호에 인구는 남자가 132명, 여자가 127명으로 합계 259명이며, 초가는 214칸”이라고 하였다. 1914년 4월 1일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제주군 제주면에 도련리와 삼양리가 나란히 편제되어 있다. 이때 도련리는 도련리와 삼양리, 봉개리의 일부를 합쳐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삼양리는 삼양리 일부로 형성되었다. 1931년 4월 1일에는 제주면이 읍(邑)으로 승격됨에 따라 두 마을은 자연히 제주읍에 소속되었다. 이후 두 마을은 1946년 8월 1일 군제(郡制) 실시에 따라 북제주군에 편입된다.

1955년 9월 1일에는 법률 제368호에 의하여 제주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 독립하여 40개 동(洞)을 관할하였다. 이때에 삼양동은 1동 · 2동 · 3동으로 나누어지고 도련동은 1동 · 2동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제주시에 소속되었다. 1962년 1월 1일에는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종전의 40개 동(洞)이 14개 행정동으로 축소되는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삼양 1동 · 2동 · 3동과 도련 1동 · 2동을 합하여 삼양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삼양동이 3개 동으로 분화될 때 삼양1동은 전통적으로 삼양리의 중심 마을이었던 ‘설개’를 비롯하여 ‘동카름성창’, ‘주구리’ 등의 마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삼양2동은 ‘가물개[甘水洞]’ 마을을 중심으로 ‘들은돌[擧石洞]’ 등이 포함되었으며, 삼양3동은 ‘검은여’와 ‘버렁’ 등으로 불리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도련1동은 ‘도련드르’, 도련2동은 ‘매돈지(梅敦地)’ 등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이루어졌다.

오늘날 흔히들 법화사(法華寺) · 수정사(水精寺) · 원당사(元堂寺)를 원(元) 나라 때에 세운 3대 사찰(寺刹)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심되는 것은 그 중 원당사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불우(佛宇) 항목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원래 성종 17년(1486)에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그 뒤 연산군 5년(1499)에 이를 교정하고 보충하여 다시 간행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본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중종 25년(1530)에 재차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보충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때에 증보된 내용에는 반드시 ‘신증(新增)’이란 두 글자를 넣어서 표시하였다. 그래서 책명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원당사는 『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재판인 연산군 때(책명은 동일함), 3판인 중종 때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 있지 않는 것은 혹 이때에는 원당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원당사는 『남사록』에도 언급이 없으며, 효종 4년(1653)에 간행된 『탐라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구전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문헌학적(실제 문헌학적으로는 고증할 길이 없다), 고고학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어쩌면 후대의 창건 사실이 호사가들에 의해 앞당겨지고 내용이 부연되어 구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기황후(奇皇后, ?~1369)와 5층석탑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실기(濟州島實記)』(1934년) 건치연역 항목에는 원당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충렬왕 26년(1300)에 기황후가 또 소·말·나귀·양 등의 방목장을 수산평(首山坪; 水山坪)에 정하였다. 제주성(濟州城) 내 동해빈(東海濱)의 삼첩칠봉(三疊七峰, 지금의 元堂峰) 아래에 큰 절을 지어서 7층탑을 조각(造刻)하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복을 빌며 원당(元堂)이라고 칭하니, 이로써 불교가 날로 왕성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제주시에서 세운 표지석에도 유산한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칠층탑은 오층탑의 착오이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원당사의 창건 연대가 충렬왕 26년이라면, 원 나라의 황실세계(皇室世系)를 참고할 때 기황후와 연계(連繫)지을 수가 없고, 반대로 기황후와 연계시키려면 원당사의 창건 연대는 그보다 훨씬 뒤로 물러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렬왕 26년 무렵의 원 나라 황제는 2대 성종(成宗, 1296~1307)이고, 순제(順帝, 1333~1367)는 11대로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당사와 관련하여 황태자[愛猷識理達臘]의 탄생을 기원하여 절을 창건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황후의 신분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한낱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다. 즉, 기황후가 원 나라 순제(順帝)의 공녀로 들어간 것이 고려 충숙왕 복위 2년(1333) 12월이고, 그녀의 몸에서 황태자가 태어난 것은 충숙왕 복위 8년(1339) 겨울이었다. 또 이를 계기로 제2 황후가 된 것은 그 다음해인 충혜왕 복위 원년(1340) 4월이다. 적어도 제주도에 원찰(願刹)을 세울 정도의 신분이라면 제2 황후가 된 이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황태자는 그 이전에 이미 태어났다. 따라서 공녀의 신분으로 그것도 머나먼 제주도에 원찰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충렬왕 26년(1300)은 기황후와 시기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황후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때인 것이다.

* 오층석탑은 ‘불탑사오층석탑’이라는 명칭으로 1993년 11월 19일에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었으나, 불탑사는 1914년에 재건된 사찰이므로 원래 있었던 원당사로 바꾸어서 보물의 명칭을 ‘원당사오층석탑’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Ⅲ. 조사 방법 및 층위

1. 조사 방법

조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삼양2동 2101-18번지이며 조사면적은 162.1㎡이다. 유적은 현재 해안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는 8m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삼양유원지 조성부지내 유적과 인접한 지역이다.

조사대상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교란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는 표본조사 트렌치에서 확인된 층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구굴광선이나 유물이 확인되는 면까지 제토를 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토면인 황갈색점토층까지 전면 제토를 원칙으로 하여 유구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였다.

유구 내부조사는 수혈유구의 경우 규모가 큰 경우는 ‘+’보크를 설치하여 유구간의 중복관계와 유물 출토 및 토층 단면을 확인하였으며 규모가 작은 수혈의 경우 ‘-’보크를 넣어 유물 출토와 토층 단면을 확인하였다. 유구내부 조사를 한 후 유구평면 형태와 유물에 대한 실측조사와 토층 실측조사를 병행하여 유구의 축조양상과 중복유구에 대한 선·후축 관계를 파악하였다. 유구와 유물 실측 후 레벨측량과 사진촬영, 유물수습 등의 순차적 조사를 하였다.



삼도 2. 조사대상지 위성사진(출처 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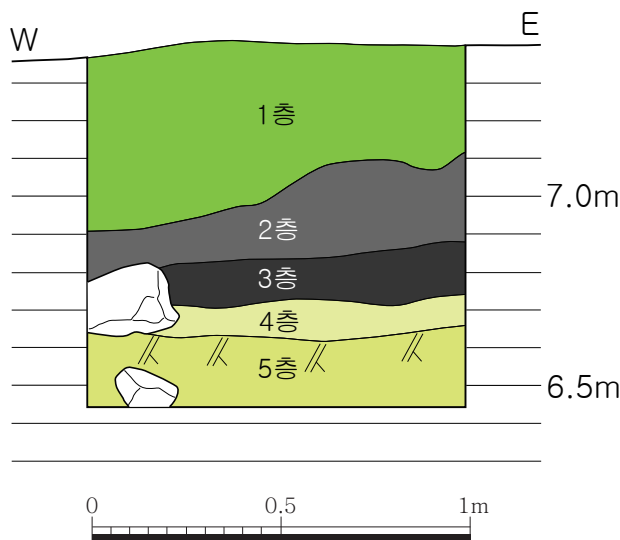
2. 층위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이며 삼양2동 해안가에 인접해 있다. 유적은 현재 해안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는 8m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의 지형은 남에서 북으로 급경사져 내려오는 지형을 보이고 있으나 조사대상지 내부의 주변에 비해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교란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층위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내부에서는 모두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층위양상은 복토층 하단으로 사구층이 확인되었으며 3층은 사구층 하단으로 초기철기~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다. 4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신석기시대 문화층으로 판단된다. 5층은 황색점토층으로 생토층이다. 모두 5개층으로 구분된다.

토층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I 층(복토층) : 복토층으로 생활쓰레기 및 건축자재가 확인된다. 층의 두께는 30~50cm이다.
- ② II 층 : 검은색 사구층이다. 삼양동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층의 두께는 20~30cm이다.
- ③ III 층 :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초기철기~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판단되며 소량의 목탄과 소토가 혼입되었다. 층의 두께는 10~20cm이다.
- ④ IV 층 : 황갈색사질점토층이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으로 판단되며 소량의 목탄이 혼입되었다. 층의 두께는 10cm 내외이다.
- ⑤ V 층 : 황갈색점토층으로 생토층이다. 바닥으로 암반층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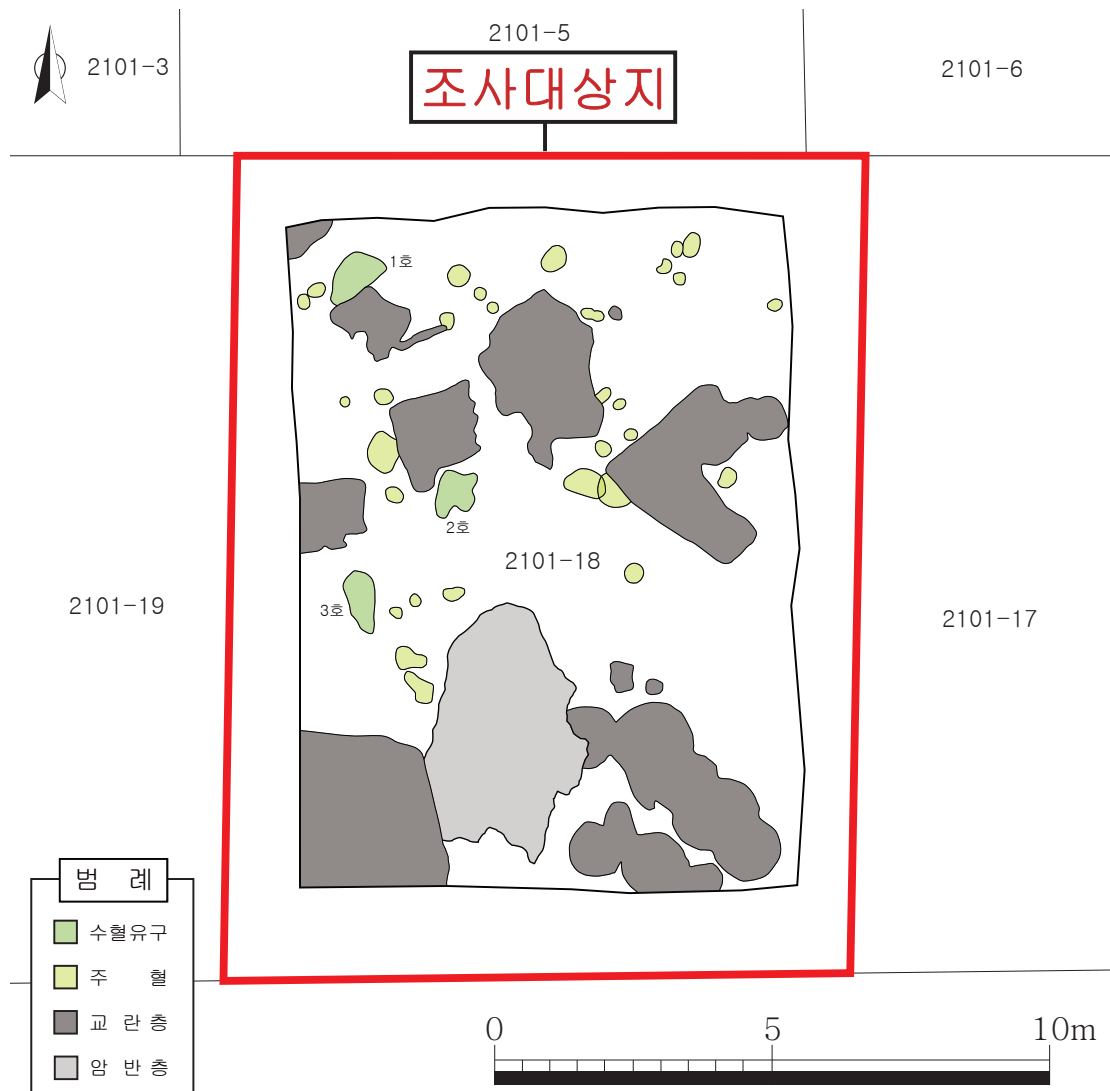


도면 7. 조사대상지 층위도

IV. 조사 내용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조사대상지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삼양유원지 조성부지내 유적과 인접한 지역이며 조사면적은 162.1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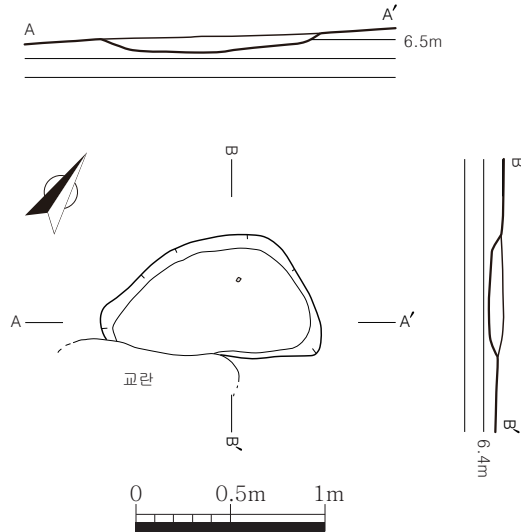
발굴조사결과 조사대상지에는 상당부분 교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구는 조사대상지 북서쪽과 남쪽에서 수혈유구 3기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도면 8.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1.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도면 9.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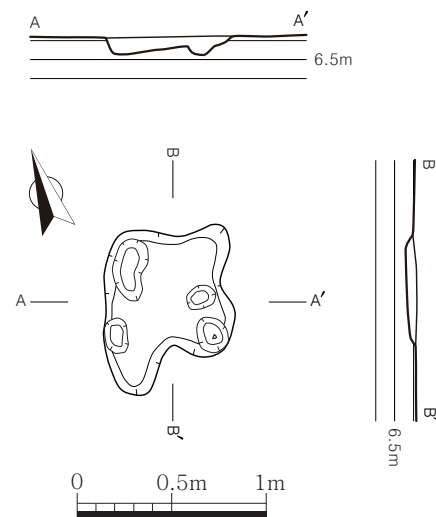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9, 도판 2-①~④)

조사대상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남쪽은 교란에 의해 일부 훼손되었다. 유구상부에서는 토기잔편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N57°E이다. 규모는 장축 116cm, 단축 66cm, 깊이 6cm로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벽체는 유구 중앙부로 갈수록 경사져 내려가게 굴착하였으며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유구내부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퇴적된 단일층이며 내부토에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었다. 내부바닥은 고르지 못하며 요철이 심하다. 유구내부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으로 판단되는 잔편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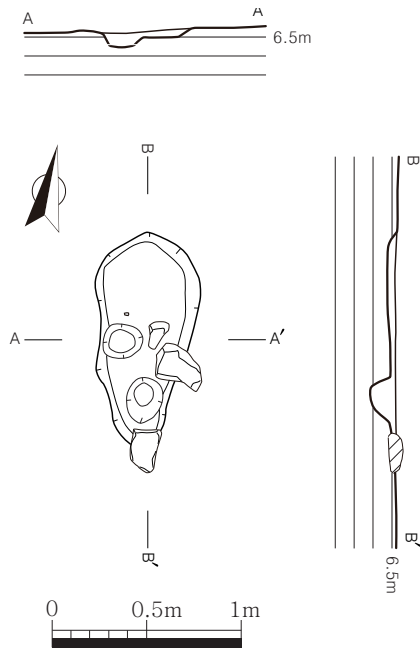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0, 도판 2-⑤~⑧ · 3-①~④)

조사대상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상부에서는 토기잔편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N73°W이다. 규모는 장축 63cm, 단축 58cm, 깊이 4cm로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벽체는 유구 중앙부로 갈수록 경사져 내려가게 굴착하였으며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유구내부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퇴적된 단일층이며 내부토에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었다. 내부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주혈 4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깊이는 10cm가 넘지 않는다. 유구내부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으로 판단되는 잔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10.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11.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3)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1, 도판 3-⑤~⑧ · 4-①~④)

조사대상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상부에 서는 토기잔편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N7°W이다. 규모는 장축 122cm, 단축 48cm, 깊이 4cm로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벽체는 유구 중앙부로 갈수록 경사져 내려가게 굴착하였으며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유구내부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퇴적된 단일층이며 내부토에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었다. 내부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주혈 2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깊이는 10cm가 넘지 않는다. 유구내부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으로 판단되는 잔편이 출토되었다.

V. 맺음말

제주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부지내 발굴조사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면적은 162.1m²이다. 유적은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잔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조사대상지의 층위는 모두 5개 층으로 구분되며 복토층과 사구층 하단으로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문화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 신석기시대 문화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 등 총 2개의 문화층이 퇴적되었다. 신석기시대 문화층 하단으로는 생토층인 황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나 부정형으로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장축이 1m 내외로 소형이다. 2호 수혈유구와 3호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잔편이 확인되어 신석기시대에 조성된 유구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토기잔편이 유구내부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잔편으로 확인되어 기형을 알 수 없으나 내부 태토에 혼입된 보강재로 미뤄보아 크게 신석기시대 후기 토기편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 토기편인 경우 보강재로 가는 모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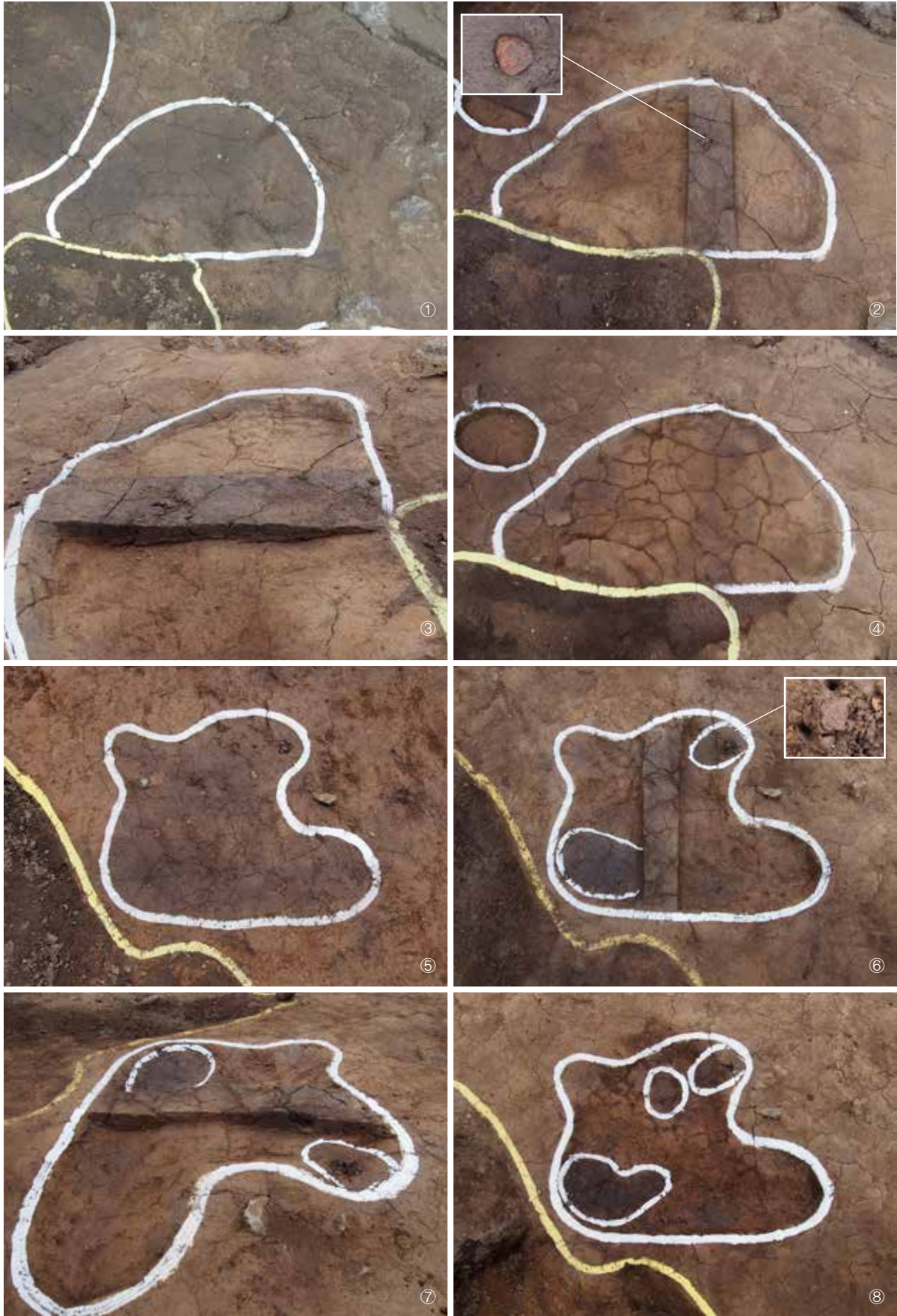
유물 선별회의 결과, 출토유물이 기형을 알 수 없는 토기 잔편으로 출토되었고 기존 삼양동유적에서 나온 유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어 보고서 수록과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선정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출토유물은 수록하지 않았다.

금번 조사한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 양상으로 보아 삼양동일대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생활유적의 일부분으로 판단된다.

도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북서에서, ②북에서)



도판 2. 1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1차 조사 후, ③토층, ④조사 완료),
2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⑥1차 조사 후, ⑦토층, ⑧2차 조사 후)



도판 3. 2호 수혈유구(①~③내부 주혈 토층, ④조사 완료),
3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⑥1차 조사 후, ⑦토층, ⑧출토유물)



도판 4. 3호 수혈유구(①2차 조사 후, ②·③내부 주혈 토층, ④조사 완료), 조사대상지 남서쪽 유물 출토 모습(⑤)



도판 5. 조사대상지 북동쪽 유물 출토 모습(①), 자문회의 모습(②)

루비

발굴조사 자문회의 의견서

1. 제주도 삼양2동 2101-18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자문회의

- 일 시 : 2017년 7월 21일(금)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삼양2동 삼양2동 2101-18번지
- 자문위원 :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김정선(제주도 문화재위원회)

1) 유적 현황 및 성격

- 사업대상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 및 3기의 수혈유구, 다수의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와 문화층 내에서 신석기시대 토기 소편이 출토되었다.

2) 조사기관 의견 검토

- 조사기관의 조사방법, 층위해석, 유구해석 등이 비교적 타당함.

3) 추가 의견

- 유구의 형태가 뚜렷치 않고 교란된 부분이 많아 발굴 결과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하고 신청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함.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유적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조사 면적	162.1㎡	조사기관	제주고고학연구소
조사 기간	2017년 7월 13일~2017년 8월 25일 (현장조사 7일)	회의 일시	2017년 7월 21일
유적 현황 및 성격	사당대상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 및 3기의 수혈유구. 다량의 주화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벽과 문화층 내에서 신석기시대 후기 토편이 출토되었다.		
조사기관 의견 검토	조사기관의 조사방향, 층위해석, 유구해석 등이 비교적 타당함.		
추가 의견	유구의 형태가 뚜렷치 않고 조사된 부분이 많아 발굴결과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하고 신정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함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고 재 원		(인)
제주도 문화재위원	김 정 선		(인)
2017년 7월 21일			

[첨부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허가번호	제2017-0891호		
유 적 명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조사기관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출토유물	토기 동체부편 등 8건 8점 1상자		
회의일시	2017 년 8 월 26 일		
평 가 의 견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해당 사항 없음		
학술 문화재 (비수록)	토기 동체부편 8점은 가류 삼양동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과 유사한 점으로 판단하여 학제상 처리함 (1/Box 유물 상자 2개)		
매물자료 (비수록)	해당 사항 없음		
평 가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제주고고학연구소	박영구 (서명)		(서명)
제주고고학연구소	원호재 (서명)		(서명)
제주고고학연구소	이근호 (서명)		(서명)

※ 평가기준

1.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학술 문화재(비 수록 유물) :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3. 매물자료(비 수록 유물) :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자료
- ※ 출토유물 수량은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제주고고학연구소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보고서

2017 년

(주) 다인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요약 테이블

의뢰기관	제주고고학연구소
의뢰인	이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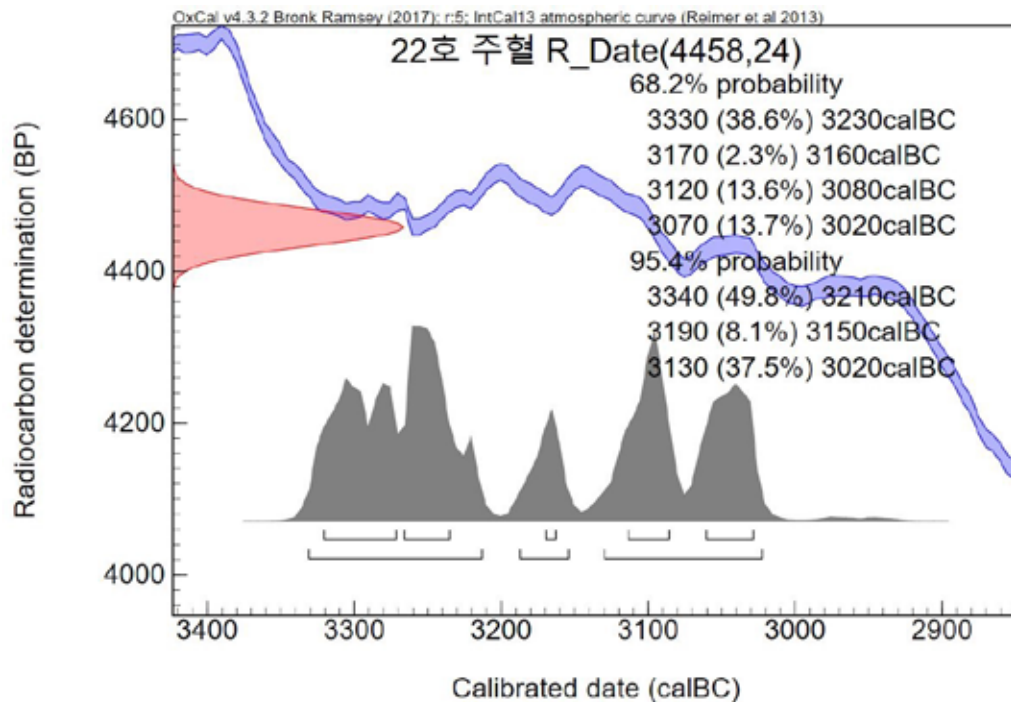
No.	시료명	보정 연대 결과		탄소연대 (yrs BP $\pm$ Err)	$\delta^{13}\text{C}$ (‰)	pMC (%)
		2 σ 연대 (95.4%)	cal avr $\pm$ Err			
1	22호 주혈	3340 calBC ~ 3020 calBC	3180 $\pm$ 160 calBC	4458 $\pm$ 24	-22.3 $\pm$ 0.3	57.4 $\pm$ 0.17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가속기 질량분석기 (AMS) 재원

분석시험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모델명	6 MV Tandetron
Ion sources	SO-100 Duoplasmatron
Voltage Range [MV]	0.4 ~ 6.2
용도	연대측정 및 초극미량동위원소 분석
Commissioned	2013
제작사	High Voltage Engineering Europa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가속기 연구실 (https://aac.kist.re.kr/accelerator/equipment/accelerator_2_1)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제주고고학연구소		
의뢰인	이하나		
시험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접수코드	전처리 방법
22호 주혈	ESCh170546	DIS170823WA142	AAA
탄소연대 (yrs BP $\pm$ err)	$\delta^{13}\text{C} \pm \text{err} (\%)$	$\text{pMC} \pm \text{err} (\%)$	
4458 $\pm$ 24	-22.3 $\pm$ 0.3	57.4 $\pm$ 0.17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 (65% 신뢰구간) 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 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9月 25日
發行機關	名稱	(재)제주고고학연구소			
	住所	(632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3길 1 (일도2동) 3층			
	TEL	(064) 711-9996	FAX	(064) 712-9984	
執筆・編輯者	강창화 · 김용덕 · 윤중현 · 오원홍				
調査 緣由	건물신축에 따른 구제발굴조사				
發掘調査者	강창화 · 김용덕 · 윤중현 · 오원홍 · 송주란				
遺蹟調査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01-18번지				
調査面積	162.1㎡				
調査期間	2017년 7월 13일 ~ 2017년 8월 25일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유구	신석기	3기			

